‘발등에 불’ 문체부, 평창 점검 등 비상체제 가동

김종 전 차관 이어 조윤선 전 장관까지 구속
조직 안정화 최선…“현안사업 차질없이 진행”

헌정 사상 첫 현직 장관 구속과 사퇴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사과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먹잇감’이자 ‘첨병’ 노릇을 하며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아온 문체부는 초유의 장관 구속과 사퇴라는 불상사 속에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고, 조직 재정비와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은 22일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인 대국민사과에는 송수근 장관직무대행, 유 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미 구속된 김종 전 제2차관에 이어 지난해 9월 부임한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21일 구속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 구속 직후 송수근 제1차관은 장관직무대행을 맡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송 장관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지금 다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있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체육계 내에선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가 부처 설립 이후 가장 큰 혼돈에 빠짐에 따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도 이를 의식해 최우선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유동훈 제2차관이 중심이 돼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송·숙박·안전 등 대회 준비 단계별 주요 과제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안들에 대해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9일만에 또 59타…이번엔 ‘무명’ 헤드윈이 해냈다

‘커리어빌더 챌린지’ 3라운드서 기록
역대 8번째…PGA투어 첫 우승 눈앞

꿈의 타수로 불리는 ‘59타’가 9일 만에 또 나왔다. 세계랭킹 196위의 무명 골퍼 애덤 헤드윈(캐나다)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총상금 580만 달러) 3라운드에서 역대 8번째 59타 기록(58타 포함 통산 9회)을 달성했다.

헤드윈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킨타의 PGA웨스트 골프장 라킨타코스(파72)에서 열린 경기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13개 골라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13언더파 59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7언더파 199타를 적어낸 헤드윈은 단독 선두로 나서며 PGA 투어 첫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PGA 투어 역대 최소타인 58타(짐 퓨릭·2016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는 1타가 모자라지만, 60타 이하의 타수는 역대 9번 밖에 나오지 않았을 만큼 희귀한 기록이다. 그러나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주 하와이에서 열린 소니오픈 1라운드에서 저스틴 토마스가 59타(11언더파)를 친 이후 9일 만에 다시 나왔다.

헤드윈의 기록이 더욱 눈길을 끄는 건, 파72 코스에서 59타를 쳤다는 점이다. 역대 기록 중에서도 파72에서 59타를 친 선수는 단 3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모두 2000년 이전에 세워진 기록이다. 1977년 멤피스클래식(현 세인트주드클래식)에서 알 가이버거가 처음으로 59타를 쳤고, 이어 1991년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칩 벡 그리고 1999년 봅호프 클래식에서 데이비드 듀발이 59타를 기록했다. 이후 작성된 5차례의 기록은 모두 파71 또는 파70에서 작성됐다.

무명 골퍼 애덤 헤드윈이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킨타 PGA웨스트 골프장에서 열린 PGA 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 3라운드에서 역대 9번째 50타대 타수를 적어내며 첫 우승에 한 발 다가섰다. 버디만 13개 골라내며 13언더파 59타를 기록한 헤드윈이 18번홀에서 퍼트를 마친 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라킨타(미 캘리포니아 주) | AP뉴시스

PGA 투어 역대 60타 이하 기록

선수	대회명/라운드/성적	파(Par)	성적
알 가이버거	1977 멤피스 클래식/R2/59	72	우승
칩 벡	1991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R3/59	72	T3
데이비드 듀발	1999 봅호프 클래식/R4/59	72	우승
폴 고이도스	2010 존디어클래식/R1/59	71	2
스튜어트 애플비	2010 그린브리어 클래식/R4/59	70	우승
짐 퓨릭	2013 BMW 챔피언십/R2/59	71	3
짐 퓨릭	2016 트래블러스 챔피언십/R4/58	70	T5
저스틴 토마스	2017 소니오픈/R1/59	70	우승
애덤 헤드윈	2017 커리어빌더 챌린지/R3/59	72	진행 중

헤드윈은 무명에 가까운 선수다. 지난 시즌 페덱스랭킹 85위였다. PGA 투어 우승은 없으며, 2014년 웹닷컴 투어 칠레클래식과 치키타 클래식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게 전부다. 이에 앞서 2010년(데저트듄스 클래식)과 2011년(퍼시픽콜롬비아 투어챔피언십)에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맥켄지(3부급)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PGA 투어에서는 아직 준우승도 없다. 통산 72차례 출전해 ‘톱10’에 이름을 올린 것도 8번에 불과하다. 2011년 RBC 캐나다오픈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헤드윈이 여세를 몰아 PGA 투어 첫 우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50타대 성적을 기록한 선수의 우승확률은 50% 밖에 되지 않았다. 알 가이버거와 데이비드 듀발, 스튜어트 애플비(2010년 그린브리어클래식)와 지난 주 소니오픈 우승을 차지한 저스틴 토마스 뿐이다. 짐 퓨릭은 2013년 BMW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9타, 2016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8타를 쳤지만, 3위와 공동 5위에 그쳤다.

헤드윈이 최종 4라운드에서도 이날과 같은 샷 감각을 유지한다면 우승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2위 도미닉 보젤리(16언더파 200타)와 1타 차에 불과하고, 공동 3위 채드 캠벨(15언더파 201타) 등에도 겨우 2타 앞서 있어 쉽지 않은 우승 경쟁을 뚫어야 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샤페코엔시 ‘눈물의 복귀전’ 지난해 11월 충격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뒤 팀을 재정비한 샤페코엔시가 22일(한국시간) 브라질 샤페쿠의 콘다 아레나에서 2016년 자국리그 우승팀인 파우메이라스와 친선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에 앞서 참사의 생존선수인 힐리오 네토(앞줄 왼쪽 끝), 잭슨 폴맨(앞줄 오른쪽 2번째), 알랑 루스켈(오른쪽 끝)은 당시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 상대였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이 양보한 우승컵을 수여받았다. 샤페쿠(브라질) | AP뉴시스

송영한 아쉬운 준우승

싱가포르오픈 8언더파…막생에 1타차

송영한(26·신한금융그룹)의 타이틀 방어가 무산됐다. 아시안투어 겸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2017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SMBC 싱가포르오픈(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다.

송영한은 22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세라퐁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적어내 2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송영한은 프라야드 막생(태국·합계 9언더파 275타)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주빅 파군산(필리핀) 등 4명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였던 조던 스피스(미국)를 제물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던 송영한은 1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2016년 시즌 종료 후 국내에 머물며 휴식과 체력 훈련을 병행해 온 송영한은 작년 12월 말 부푼 기대감을 안고 싱가포르에 입성했다. 송영한은 출국 전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오겠다”며 굳은 각오를 보였다. 기대했던 우승은 놓쳤지만,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디오픈 출전권을 받아 아쉬움을 달랬다. 또 목표인 마스터스(4월 첫 주) 전까지 세계랭킹 50위 진입의 희망도 높였다. 준우승으로 80위에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박상현(34·동아제약)은 합계 7언더파 277타를 쳐 공동 6위, 세계랭킹 7위 애덤 스콧(호주)은 공동 9위(6언더파 280타), 강경남(34)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과 함께 공동 11위(5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2일〉

•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 올스타전 경기결과

시니어	150	74 76	42 - 40 32 - 42 35 - 19 41 - 25	82 44	126	주니어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24	23	1	0.958	0	10승
2	삼성생명	23	12	11	0.522	10.5	1패
3	KEB하나	23	10	13	0.435	12.5	4패
4	신한은행	23	9	14	0.391	13.5	1승
5	KDB생명	24	9	15	0.375	14	2패
6	KB스타즈	23	7	16	0.304	15.5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크리스마스	KDB생명	15.9	① 박혜진	우리은행	5.2	① 존스	우리은행	12.4
② 존스	우리은행	15.8	② 이경은	KDB생명	4.4	② 크리스마스	KDB생명	8.7
③ 김단비	신한은행	15.4	③ 김단비	신한은행	3.8	③ 하워드	삼성생명	8.5
④ 쏜튼	KEB하나	15.4	④ 임영희	우리은행	3.8	④ 쏜튼	KEB하나	8.1
⑤ 피어슨	KB스타즈	13.8	⑤ 배혜윤	삼성생명	3.6	⑤ 피어슨	KB스타즈	7.4

•경기결과

22일	KB스타즈 (7승16패)	61	23 38	12 - 17 11 - 19 13 - 21 25 - 18	36 39	75 우리은행 (23승1패)
21일	삼성생명 (12승11패)	65	32 33	16 - 25 16 - 14 24 - 17 9 - 18	39 35	74 신한은행 (9승14패)
20일	KDB생명 (9승15패)	58	27 31	14 - 16 13 - 15 14 - 21 17 - 13	31 34	65 우리은행 (22승1패)

프로배구 〈22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올스타전 경기결과

22일	K-스타	4	15 - 11 15 - 11 15 - 10 15 - 10	0	V-스타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경기결과

20일	OK저축은행 (4승20패)	0	20 - 25 19 - 25 24 - 26	3	대한항공 (17승7패)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경기결과

20일	도로공사 (4승16패)	2	25 - 23 19 - 25 26 - 24 23 - 25 10 - 15	3	흥국생명 (15승5패)

GOLF 〈22일〉

•커리어빌더 챌린지 TOP10

PGA 3라운드

① 해드윈(캐나다)	-17	② 보젤리(미국)	-16	③ 스와포드(미국)	-15
③ 하먼(미국)	-15	③ 컬리(미국)	-15	③ 캠벨(미국)	-15
⑦ 스틸레(미국)	-14	⑧ 가리구스(미국)	-13	⑧ 커크(미국)	-13
⑱ 김민휘(한국)	-10	㉑ 이진명(뉴질랜드)	-9	㊸ 나상욱(미국)	-6

NBA 〈22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토론토	28	15	1	클리블랜드	30	12	1	애틀랜타	26	18
2	보스턴	26	17	2	인디애나	22	21	2	워싱턴	23	20
3	뉴욕	19	26	3	시카고	22	23	3	샬럿	23	21
4	필라델피아	15	27	4	디트로이트	21	24	4	올랜도	18	27
5	브루클린	9	34	5	밀워키	20	23	5	마이애미	14	30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29	16	1	골든스테이트	37	6	1	샌안토니오	34	9
2	오클라호마	25	19	2	LAC	29	16	2	휴스턴	34	13
3	덴버	18	24	3	새크라멘토	16	27	3	멤피스	26	20
4	포틀랜드	19	27	4	LAL	16	31	4	뉴올리언즈	17	27
5	미네소타	15	28	5	피닉스	14	29	5	댈러스	14	29

•경기결과

애틀랜타	110 - 93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109 - 97	밀워키
샌안토니오	118 - 115 〈연장〉	클리블랜드	포틀랜드	127 - 123 〈연장〉	보스턴
휴스턴	119 - 95	멤피스	시카고	102 - 99	새크라멘토
덴버	123 - 98	LAC	디트로이트	113 - 112	워싱턴
피닉스	107 - 105	뉴욕	유타	109 - 100	인디애나
샬럿	112 - 105	브루클린			

해외축구 〈22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본머스	2 - 2	왓포드	에버턴	1 - 0	크리스탈팰리스
스완지시티	3 - 2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2 - 2	토트넘
웨스트햄	3 - 1	미들즈브러	스토크시티	1 - 1	맨체스터Utd.
웨스트브롬위치	2 - 0	선더랜드			

아마추어 경기결과

금요일 경기결과 ……〈20일〉

농구 ●2016-2017 KBL D리그 1차(고양보조)
•결승전=상무(우승) 89-75 오리온

빙상 ●제 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목동아이스링크, 성남 탄천빙상장)
•쇼트트랙 1000m 남자 일반부 종합 순위=① 김동욱(강원), ② 신다운(서울), ③ 박세영(경기) •쇼트트랙 1000m 남자 대학부 종합 순위=① 김두연(서울), ② 김병준(서울), ③ 윤정후(경기) •쇼트트랙 1000m 남자 고등부 종합 순위=① 황대헌(경기), ② 박노원(대구), ③ 박장혁(서울) •쇼트트랙 1000m 여자 일반부 종합 순위=① 김보라(경기), ② 박선영(서울), ③ 최지현(경기) •쇼트트랙 1000m 여자 대학부 종합 순위=① 손하경(서울), ② 안세정(서울), ③ 박지원(전북) •쇼트트랙 1000m 여자 고등부 종합 순위=① 이수연(경기), ② 박지윤(경기), ③ 천유빈(서울) •쇼트트랙 3000m 계주 남자 일반부 결승전=① 서울선발(서울), ② 강원선발(강원), ③ 경기선발(경기) •쇼트트랙 3000m 계주 남자 대학부 결승전=① 서울선발(서울), ② 계명대(대구), ③ 경기선발(경기) •쇼트트랙 3000m 계주 남자 고등부 결승전=① 서울선발(서울), ② 대구선발(대구), ③ 경기선발(경기) •쇼트트랙 3000m 계주 여자 일반부 결승전=① 전북도청(전북), ② 서울선발(서울), ③ 경기선발(경기) •쇼트트랙 3000m 계주 여자 대학부 결승전=① 경기선발(경기), ② 서울선발(서울) •쇼트트랙 3000m 계주 여자 고등부 결승전=① 경기선발(경기), ② 서울선발(서울)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대학부 싱글 C조=① 김범수(경기) •피겨 남자 대학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김범수(경기)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고등부 싱글 C조=① 김현우(인천), ② 전병규(충북) •피겨 남자 고등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김현우(인천), ② 전병규(충북)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중등부 싱글 C조=① 이동혁(부산) •피겨 남자 중등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이동혁(부산)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대학부 싱글 C조=① 서유정(경북), ② 최희선(강원) •피겨 여자 대학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최희선(강원), ② 서유정(경북)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고등부 싱글 C조=① 박지은(경기), ② 박도현(서울), ③ 이유경(대구)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박지은(경기), ② 박도현(서울), ③ 이유경(대구)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중등부 싱글 C조=① 이지오(경기), ② 신윤진(서울), ③ 강연우(경기) •피겨 쇼트프로그램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고등부 순위=① TB&A(서울) •피겨 프리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고등부 순위=① TB&A(서울) •피겨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고등부 최종 종합 순위=① TB&A(서울)

토요일 경기결과 ……〈21일〉

축구 ●2016-2017 FK리그(횡성국민체육센터)
•남자부=FS서울(7승2무1패) 6-6 용인FS(6승1무3패), 판타지아부천(8승2무) 3-2 제천FS(5승5패), 서울광진(5승1무4패) 11-5 은평FS(3승7패) •남자부 현재 순위=① 판타지아부천(26점), ② FS서울(23점), ③ 용인FS(19점)

빙상 ●제 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성남 탄천빙상장)
•피겨 쇼트프로그램 남자 대학부 싱글 A조=① 이준형(경기), ② 이동원(충남) •피겨 쇼트프로그램 남자 고등부 싱글 A조=① 이시형(경기), ② 안건형(경기) •피겨 쇼트프로그램 남자 고등부 싱글 B조=① 경재석(경기), ② 김상우(대구), ③ 김건모(대구) •피겨 쇼트프로그램 남자 중등부 싱글 A조=① 박성훈(경기) •피겨 쇼트프로그램 남자 중등부 싱글 B조=① 차영현(경기), ② 김한길(경기), ③ 김현(서울)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대학부 싱글 A조=① 김해진(서울), ② 최휘(충남)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고등부 싱글 A조=① 최다빈(경기), ② 권예나(서울), ③ 최유진(경기)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고등부 싱글 B조=① 정유진(대구), ② 박미선(대구), ③ 김채영(경기)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중등부 싱글 A조=① 임은수(서울), ② 김예림(경기), ③ 도지훈(인천) •피겨 쇼트프로그램 여자 중등부 싱글 B조=① 서예은(서울), ② 방지원(서울), ③ 최현수(경기)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중등부 싱글 C조=① 이지오(경기), ② 신윤진(서울), ③ 강연우(경기) •피겨 여자 중등부 싱글 C조 최종 종합 순위=① 이지오(경기), ② 신윤진(서울), ③ 강연우(경기)

일요일 경기결과 ……〈22일〉

빙상 ●제 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목동아이스링크, 성남 탄천빙상장)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대학부 싱글 A조=① 이준형(단국대), ② 이동원(단국대) •피겨 남자 대학부 싱글 A조 최종 종합 순위=① 이준형(단국대), ② 이동원(단국대)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고등부 싱글 A조=① 이시형(판곡고), ② 안건형(수리고) •피겨 남자 고등부 싱글 A조 최종 종합 순위=① 이시형(판곡고), ② 안건형(수리고)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고등부 싱글 B조=① 경재석(서현고), ② 김상우(경신고), ③ 김건모(심인고) •피겨 남자 고등부 싱글 B조 최종 종합 순위=① 경재석(서현고), ② 김상우(경신고), ③ 김건모(심인고)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중등부 싱글 A조=① 박성훈(한별중) •피겨 남자 중등부 싱글 A조 최종 종합 순위=① 박성훈(한별중)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중등부 싱글 B조=① 차영현(대화중), ② 김한길(도장중), ③ 김현(청원중) •피겨 남자 중등부 싱글 B조 최종 종합 순위=① 차영현(대화중), ② 김한길(도장중), ③ 김현(청원중)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대학부 싱글 A조=① 김해진(이화여대), ② 최휘(단국대) •피겨 여자 대학부 싱글 A조 최종 종합 순위=① 김해진(이화여대), ② 최휘(단국대)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고등부 싱글 B조=① 박미선(정화여고), ② 정유진(정화여고), ③ 고순정(부흥고)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 B조 최종 종합 순위=① 박미선(정화여고), ② 정유진(정화여고), ③ 김채영(부흥고) •피겨 프리스케이팅 여자 중등부 싱글 B조=① 최현수(과천중), ② 서예은(한강중), ③ 고은비(도장중) •피겨 여자 중등부 싱글 B조 최종 종합 순위=① 최현수(과천중), ② 서예은(한강중), ③ 고은비(도장중)

경기 예고

프로농구 〈23일〉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인천도원 〉	KEB하나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3일〉

농구 ●2016-2017 KBL D리그 2차(고양보조, 오후1시30분)
•모비스-KCC
●2016-2017 WKBL 퓨처스리그(인천도원, 오후3시30분)
•신한은행-KEB하나

핸드볼 ●제 25회 세계 남자 선수권대회(프랑스)

오늘의 토토 〈23일〉

•농구토토 W매치 15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1.23 (월) 19:00	신한은행 vs KEB하나	인천도원체육관